

열린무대 42

인·생·에·있·어·서·자·기·의·사·망·을·확·실·히·정·하·지·못·한·불·안·을·가·슴·에·지·닌·사·람·을·위·해



관계맺음의 욕망. 그 가벼움과 과격함의 쓸쓸한 관음의 방식

# silk curtain

열린소극장 재개관 기념공연 · 1

"실크 커튼은 말한다."

내가 처음 장정일을 만났을 때...

그는 은평구의 한 동네에 방을 얻어 살고 있었다. 나는 그 집에 가보지 않았다. 주로 신촌에서 만나 소주를 마시거나 락 카페에서 음악을 들었다. 그는 사람 많은 행사와 모임을 피했다. 이 때 그에게서 받은 인상은 약간 불안하고 늘 진지하고, 그리고 강한 공격적 의지로 생활을 조직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평소에 거의 농담을 하지 않았다 술은 소주를 좋아했는데 마시는 속도가 물 마시듯 했다 술이 세서 잘 취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본인이 '갔다'고 느끼면 소리 없이 사라지는 버릇이 있었다.

한 번은 이대 앞의 '올로올로'에서 2차로 맥주를 마시다 화장실을 갔었는데 소식이 없어 한참이나 찾아다닌 적이 있다. 나중에야 나를 찾으러 나온 김완준으로부터 '자주 그런다'는 얘길 듣게 되었는데, 사실 이 때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한참 후에야 그런 버릇이 자신을 지키고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장정일 특유의 직설법임을 이해하게 됐다.

## 작가 소개

나는 장정일이 지갑을 갖고 다니는 걸 한번도 본 적이 없다 내가 못 본 것인지 아예 지갑이 없는 것인지 물어보지 않았지만 늘 만 원짜리 몇 장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물론 신용카드도 없다 그러니 하루 지출할 최대한의 액수가 정해져 있는 셈이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간혹 비싼 술자리로 이어지면 그는 계산대 앞에 그냥 서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감옥에서 나온 한참 뒤의 일이다. 장정일은 내게 자신의 변호를 맡은 강금실 변호사에게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는 뜻을 비쳤다. 강변호사와 저녁을 먹기 위해 대구에서 상경한 장정일은 신촌의 여관에 숙소를 정하고 약속장소인 강남의 고급 음식점에 나타났는데, 그때 그는 만 원짜리 50장을 종이에 싸서 들고 왔다 그리곤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반드시 이 돈을 다 써야 합니데이." 나중에 강변호사가 만류하는 바람에 그는 그 돈을 결국은 다 쓰지 못하고 돌아갔는데, 나는 그때 만큼 장정일이 거액의 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장정일은 술 마시면 자주 필름이 끊기는 버릇이 있다. "나는 밥을 먹는 데 손가락과 젓가락 일습이 왜 필요한지 항상 의아해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집에 돌아와 밤참을 먹고 난 다음날, 내 열 손가락은 김치물이 들어 빨개져 있고 손톱 밑은 찌물이 들어 있다. 밥과 반찬을 손으로 집어먹은 것이다. 그래서 나만 이럴 게 아니라 언젠가 근사한 만찬을 준비해 놓고 친구들을 불러 손으로 집어먹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상상도 해본다"고 글로 적고 있다.

〈장정일 화두, 혹은 코드〉 - 행복한 책읽기, 2001 중에서.

S I L K C U R T A I N T A L K T O M E

1962년 01월 06일생

1984. 언어의 세계로 데뷔 / 1987.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희곡 <실내극> 당선

1995.12 프랑스 파리 문학수업

1985 시집 - 성·아침(공저) / 1990 아담이 눈 뜰때(단편) / 1992 너에게 나를 보낸다(장편)

1994 너희가 재즈를 믿느냐? / 장정일의 독서일기 / 1995 희곡집 - 긴 여행 / 장정일문학선

● 최 응 olowoong@hananet.net

1981년 아일랜드  
1983년 장풀이  
1990년 금강 1894  
1991년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  
1992년 파우스트를 만드는 사람들  
1993년 최선생  
1998년 데스데이 <조명이 있는 교실>  
1999년 해파리섬  
2000년 그리고, 축제는 시작되었다. <조명이 있는 교실>  
실내극 · 어머니 · 실크커튼은 말한다.  
2001년 트라우마  
아우라지로 가는길

● 유재명 voix@orgio.net

1997년 서툰 사람들  
1998년 해바라기  
종이뱅기  
1999년 꽃들은 모두...어디로 갔나 <작, 연출>  
2000년 길  
실내극 · 어머니 · 실크커튼은 말한다

● 손남숙 orangeanne@hanmail.net

2000년 실내극 · 어머니 · 실크커튼은 말한다  
2001년 Happy and Dim  
종이뱅기  
트라우마  
2002년 어두운태양



choiwo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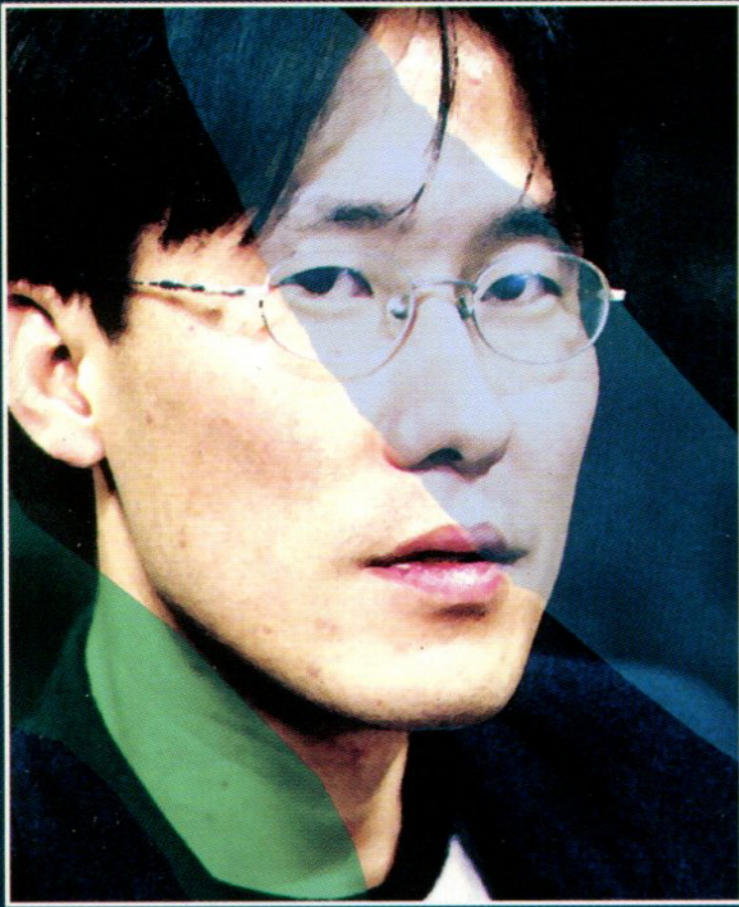


son nam sook



you chea-myung

# ACTORS



작곡 이세호

grotesqr@sayclub.com

- 1995. <신더스> 연희단 거리패
- 1996. <신의 아그네스> 연희단거리패
- 1997. <실내극·어머니·실크커튼은 말한다> 열린무대
- 1998. <해바라기> 열린무대
- 1999. <종이뱅기> 열린무대
- 2000. <길> 열린무대  
<롤라> 극단 섬
- 2001. <실내극·어머니·실크커튼은 말한다> 열린무대  
<트라우마> 열린무대



안무 강희정

iluvmar@hanmail.net

- 일리노이 주립대학 석사졸업 / 현대무용단 「주-口」 대표역임 / 무대예술 공동체 마르 (MAR) 창단멤버
- 한국 예술종합학교, 연세대학교, 경성대학교 강사
- 뮤지컬 - <FAME>, <년센스>, <자갈치>, <사랑은 비를 타고>, <내생애 최고의여자> 등 안무
- 연극 - <실내극·어머니·실크커튼은 말한다>, <트라우마> 안무
- 무용 - <창>, <I am here again>, <비>, <나는 이미 죽었다>, <문(doors)>, <다섯개의 기둥 신화>, <전사>, <순수 시리즈> 등 안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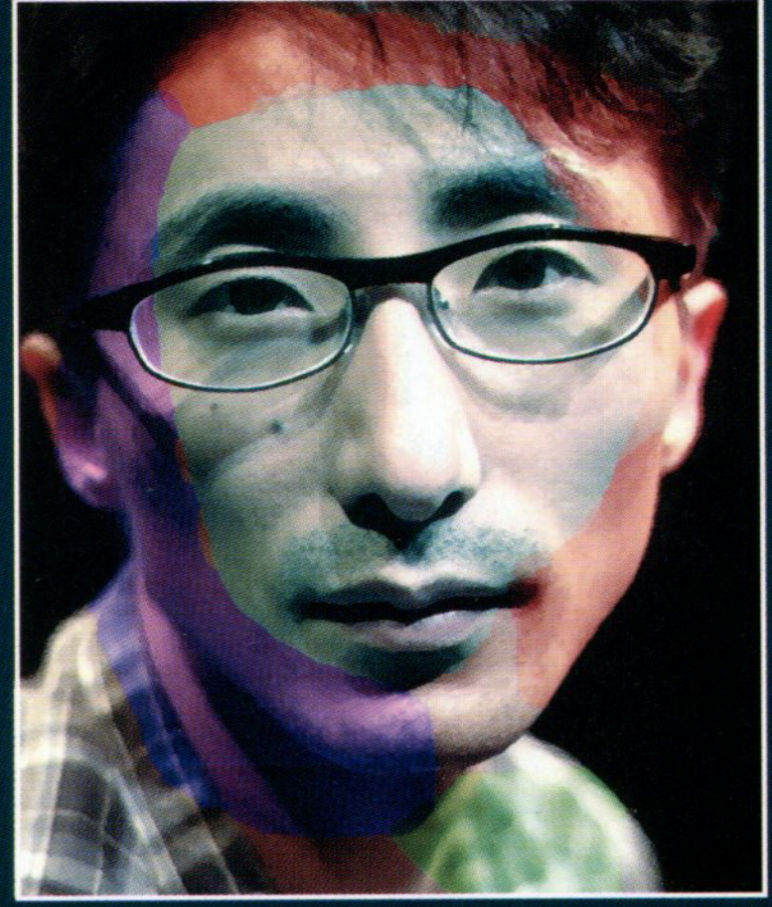


사진 김도웅

pachino8@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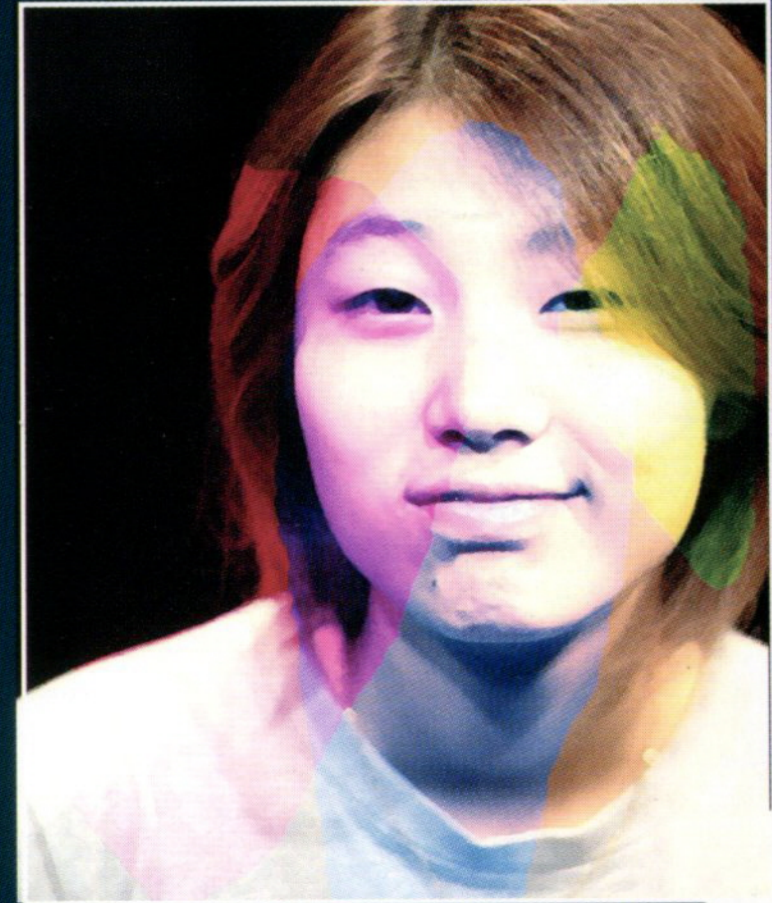
- 2001. 트라우마 <photo>



조연출 김근수

thespian@lycos.co.kr

- 2000. 실내극·어머니·실크커튼은 말한다 <출연>
- 2001. Happy and Dim <출연>
- 종이뱅기 <출연>
- 트라우마 <조연출>
- 2002. 어두운 태양 <lighting design>



조연출 박영은

youngeun8286@hanmail.net

- 2002. 극단 열린무대 입단



## 작품내용

천막촌같은 동네에 자신의 방안에 갇혀 사는 남자는 마당가에 나와 다리를 씻는 이웃 방의 여자를 훑쳐보며 수음을 한다. 그것만이 이 남자의 은밀한 유희며 세상에 대한 욕망의 전부다. 그것 말고는 도무지 움직이지 않고 사는 듯이 보인다. 이 사실을 아는 듯 여자는 매번 마당가에서 다리 씻기를 즐기며 남자의 방을 살핀다. 여자 또한 다리를 씻는 행위를 통해 남자의 애절한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세상과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을 뿐이다. 실크커튼을 젖히고 얼굴을 드러내지도 못하며 낭만적인 세레나데를 불러주지도 못한다. 관계 맺음의 욕망이 커질수록 절망감 또한 비례하는 것이다.

결국 남자와 여자는 자신들의 세계 내에서 연민과 애뜻한 사랑을 상상하며 놀이의 즐거움만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환멸과 자기혐오의 아이러니를 드러낸다. 그리하여 성적인 코드로 드러나는 이들의 유희는 어둡고 황폐하고 절망적인 불임의 세계로 치달는다. 현대사회의 반커뮤니케이션적인 관계맺음(그것은 마스크와 저널리즘에 기인하며-남자와 여자는 그곳으로부터 소극적인 도피를 한 것처럼 보인다)과 상호무관성을 보여주는 듯한 이들의 관계는 그러나 훑쳐보기를 통한 치열한 자기응시로 치환된다. 조금씩 지쳐가는 일상에서 아무런 연유 없이 터지는 남자의 울음은 욕망의 뿌리로 내려가서 내딛은, 세계와 자신에 대한 모순의 인식이다. 그 울음은 긴 장마와 더불어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게 계속된다. 삶이 오래 지속되듯, 지루한 울음이 탈색되어 가는 과정을 응시하는 동안 "관계맺음"이란 진정성과 마주쳐 보고자 한다. 마주치지 않는다면 세상은 열리지 않으므로.

# Director



연출 구현철

illu97@hanmail.com

- 1997. <실내극 · 어머니 · 실크커튼은 말한다>연출  
부산비평가그룹선정 '올해의 좋은 연극상'  
신인연출상 수상
- 1998. <해바라기>연출 부산연극제 대상, 연출상 수상
- 1999. <쇼타임> 작, 연출
- 2000. <길>연출 부산연극제 대상, 연출상 수상  
<실내극 · 어머니 · 실크커튼은 말한다 >연출
- 2001. <트라우마> 작, 연출  
시립극단 소극장페스티벌 참가작

2002. 5. 27

극장 공사 시작하다.  
진만, 근수, 남숙이와 망치로 그냥 깨부수기 시작하다.  
그러다가 지난 흔적들 많이 발견하다.

2002. 6

지난 흔적들 얘기로 술자리 찾아지다.  
하지만 10년의 세월 다 이야기 못하다.  
꿈꾸고 욕망하고 허물고 다듬고 색칠하고,  
했던 얘기 되풀이해도 싫증이 나지 않다.

2002. 7

무대제작을 하는 태훈과 승필 장비들고 오다.  
무대바닥과 조명바를 마무리 짓고 다음에 회 사주기로 굳게 약속하다.  
봉석형의 '기꺼이 어두운 무대에서 가난할 줄 아는 사람들'이란 말에 대해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과 기꺼이 가난할 줄 아는 사람  
사이의 간극을 오가다.  
장마 시작되고 삶이 갑자기 무거워지다.

2002. 8

몇몇 사람들 열린무대의 안부를 물어오고  
다 되었노라고 대답하다.  
한 지인 찾아와서 " 이래하모 머하노,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거. 어~이"  
"현철아. 현철아. 어~이"를 남발하다.

그냥 쓸쓸히 헤어지고  
문득 실크커튼 말한다 연습 들어가다.

2002. 9

웅이형이 지난 장마를 기억해내고  
나는 물이 가지는 이기심과 생성과 소멸의 이미지를 남자, 여자의 오브제로  
떠올리다. 그리고 현관형에게 연락하다.  
형 아무말 없이 특수장치(?)를 고안하다.

관계맺음의 욕망, 그 가벼움과 과격함에 대한 쓸쓸한 관음의 기록  
이라고 적다.